우리 안의 친일잔재 청산·반성의 노력 있어야

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획

박해현의 새로 쓰는 광주·전남 3·1운동사

❼ 역사의 두려움을 깨우쳐 준 3·1운동

이광수

최남선

최근 우리나라 민주 인권의 상징인 5·18 민주 항쟁을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날조하고, 유공자들을 '괴물'이라고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오는 현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내란죄로 사형을 언도받은 전두환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면할 때부터 이러한 상황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그들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철저하였다면, 이러한 일들이 과연 가능하였겠는가! 역사를 가볍게 생각한 업보라 여긴다.

해방된 지 75년이 되어가지만 친일 잔재 청산은 우리 사회의 한없는 화두이다. 해방 후 이승만 정부를 비롯하여 역대 정부들은 친일 세력들을 통치 기반으로 활용하는 등 민족 정체성 회복에 소홀하였다. 친일 음악가 안익태가 작곡한 애국가를 바꾸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친일 작곡가들이 만든 것으로 드러난 광주지역 일부 학교 교가를 바꾸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친일 잔재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사례라 하겠다.

지난 2월 8일, 3·1운동의 단초였던 '2·8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행사가 일본 도쿄 현지에서 열렸다. 그 선언서는 이광수가 작성하였다. 또한 지나치게 유약하다는 일부 비판도 있지만 우리의 독립의지를 담담하게 표명한 3·1독립선언서는 최남선이 작성하였다. 3·1운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인물인 이들은 모두 투옥되는 등 조선을 대표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선언서를 작성한 최남선은 민족 대표로 서명하는 것을 회피하여 한용운이 이의를 제기할 정도로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다.

'조선의 천재'라고 일컫던 당대의 지식인들이 왜 이렇게 몰락했을까? 역사의 무서움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들처럼 3·1운동에 적극 신념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 올바른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한 인물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적지 않게 찾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살피려 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사실'과 '진실'이 섞여 후세인들의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는 피고인 심문조서에서도 "나는 부탁으로 쓴 것에 지나지 않고 사람을 선동한다는 생각도 없으므로 시위에 책임이 없다"고 자신의 행동을 부정하기에 급급하였다.

이처럼 기회주의적 처신을 하였기에 출옥 후 중추원 참의를 지내고 학도병 모집에 앞장서는 등 친일행위를 하였다. 이광수 또한 1930년대까지 여러 차례 투옥되는 등 민족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그의 스승 안창호 선생이 1938년 죽은 후 심적인 변화가 일어나 적극적인 친일의 길로 나아갔다. 이들은 모두 해방 후 반민특위에 구속되었고 친일인명사전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광주시위 핵심 인물 김복현(김철) 묘(나주 성북동)

'조선의 천재'라고 일컫던 당대의 지식인들이 왜 이렇게 몰락했을까? 역사의 무서움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들처럼 3·1운동에 적극 신념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 올바른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한 인물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적지 않게 찾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살피려 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사실'과 '진실'이 섞여 후세인들의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제 이 문제를 다루어 역사적 진실에 접근하려 할 뿐, 특정후손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광주의 시위가 지속되고 확산되는 데는 광주 제중원의 수많은 간호사·직원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인 직원 대부분이 가담하였고, 참가한 전원이 투옥되는 등 독립운동에 몸을 던졌다.

특히 3월 10일 부동교 시위에 참여하고 돌아와 서울의 천도교에서 발행된 '조선독립신문'을 본 따 '조선독립광주신문'을 제작하여 배포한 제중원 직원 황○○의 공은 매우 크다.

그는 3월 10일 시위 소식과 고종 독살설, 파리강화회의 소식 등을 담은 신문을 제중원 인쇄기를 이용하여 간호사 홍덕주·직원 장호조 등과 300부를 인쇄하였다. 3월 13일 유인물을 홍덕주는 시장에서, 장호조는 시내에서, 그 자신은 외래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는 계속하여 3월 18일에도 "조선은 일인단체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유남녀를 불문하고 2천만 동포로 이루어진 나라인즉, 독립운동에 참가하여 구금되어 신고(辛苦)를 맛보는 우리 동포는 실로 4천 년 역사를 지니는 2천만 동포를 위해 구속을 끊고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백절불굴의 결심을 갖고 전진한 바 있으니, 우리들도 이를 방관하지 말고 결속하여 목표를 향해 전진하자(하략)"라는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하는 '조선독립광주신문' 2호를 300부 인쇄하여 배포하다 체포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동료인 홍덕주와 장호조는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황○○ 등의 활동은 광주 지역 시위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따라서 광주 시위를 다룬 '독립운동사', '광주시사' 등이 황○○의 활동상을 중심으로 채워져 있음은 어쩌면 당연하다. 홍덕주와 장호조는 2007년, 1990년 각각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으나, 정작 핵심 인물인 황○○는 누락되어 있다. 김원봉처럼 해방 후 북한 정권에 참여하였다거나 후손들이 없어 조상들의 독립 운동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그럴 수 있다. 그도 이 때문일 것이라는 어느 기고 글도 보았지만 여태까지 이 문제에 주목하지 않았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사회주의 활동과는 거리가 먼데다, 광주 시위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후손이 없어도 국가로부터 공훈을 인정받을 위치에 있었다.

이광수·최남선을 빼고 2·8독립선언, 3·1만세 운동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황○○와 최○○을 빼고 광주 3·1운동을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남을 비난하거나,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는 쉽다. 그러나 변치 않은 역사적 진실 앞에서 누구든지 자유로울 수 없음을 3·1운동은 웅변해주고 있다. 3·1운동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이라 여긴다.

그러므로 그의 공적 누락은 또 다른 이유, 이를테면 교회에서의 그의 역할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 여겨진다.

일제는 우상숭배라 하여 신사 참배를 거부하였던 교회를 19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선교사가 속한 미국, 영국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크게 탄압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주사변(1931)을 일으키며 미·영과 관계가 나빠지며 교회에 대한 신사 참배 압박 강도를 높였다. 1931년 전국 최초로 신사참배 거부에 나섰다가 고등과가 폐과된 숭일학교 사례가 이때의 사정을 잘 말해준다.

중일전쟁(1937) 후 교회를 그들의 수중에 넣으려 한 일제는 1938년부터 경찰력을 동원하여 일반 기독교인들의 신사 참배는 물론 개별 교회·노회·총회차원에서 신사 참배 결의를 요구하였다.

1938년 2월 3일 평북노회가 "신사 참배는 종교가 아니요 국가의식"이라는 명분으로 굴복한 것을 시작으로 제주노회(38.4.27), 전남노회(38.5.6) 경성노회(38.5.6) 등이 차례차례 신사 참배를 결의하였고, 마침내 38년 9월 9일 일부 선교사들과 많은 신도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결의하였다. 1939년 총회에서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예수교장로회 연맹'이 조직되어 지역별로 '노회지맹', 교회별로 '애국반'이 조직되었다. 그리하여 태평양 전쟁에 필요한 비행기와 기관총 구입 대금 등을 모금하는 등 친일 행위를 하였던 것이다.

기독교계 원로인 한경직 목사도 1990년대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를 한 사실을 고백하여 많은 사람들이 놀란 적도 있지만 3·1운동 후 당회장, 장로 등을 역임하며 교회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황○○도 이러한 시대 흐름에서 벗어나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친일인명사전에 그의 이름이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시대 흐름을 안타까워하며 소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렇더라도 3·1운동사에서 빛나는 그의 활동상과 비례하여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이다.

광주보통학교 학생이었던 최○○도 비슷한 사례이다. 당시 17세의 어린 나이로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한 그의 활동은 판결문에 자세히 나와 있다. 학급 반장이었던 그는 4월 7일 운동장에 급우들을 모아 놓고 "내일 아침 조선 독립 운동을 일으켜 만세를 외치겠으니 모두 학교에 가지 말고 자혜병원(지금 전남대병원) 앞으로 집결하라"고 선동한 죄목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활동 내용이 독립운동사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지만 정작 독립유공자 명단에는 보이지 않는다. 총독부 산하 기관인 전매국에 근무한 이력 때문이라 하겠다.

이들의 이름은 친일 인명사전에 보이지 않는다. 사전의 등재 기준은 일제의 식민통치기구 참여, 항일운동 방해, 일제의 식민통치에 협력한 지식인·종교인·문화예술인, 항일 운동 경력이 있으나 일제에 협력한 자 가운데 '적극'적인 활동을 한 사람들이다. 황○○나 최○○처럼 빛나는 항일 운동을 하였고,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지 않았다 해서 '친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광수·최남선을 빼고 2·8독립선언, 3·1만세 운동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황○○와 최○○을 빼고 광주 3·1운동을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남을 비난하거나,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는 쉽다.

그러나 변치 않은 역사적 진실 앞에서 누구든지 자유로울 수 없음을 3·1운동은 웅변해주고 있다. 3·1운동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이라 여긴다. 우리 안의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3·1운동은 말해주고 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 3·1운동과 관련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수많은 얘기들을 정리하여 역사에 남겨놓을 마지막 기회이다.

문학박사·동신대 기초교양대 강사

01 광주 최고 유동인구 밀집지역
신세계백화점, U·Square, 광주종합버스터미널, e마트 등

02 광주 최대 광폭대로에 위치
20차선 차량 정체 극심 지역, 57개 버스노선 경유지(광주 최다)

03 무등일보, 뉴시스 뉴스와 생활정보 편성, 높은 주목도!

04 두 개(무진대로, 죽봉대로) 광폭대로에 노출되는 광고효과 X2

1일 100회, 월 3,000회 노출!! (20초 광고 기준)
▶ 스크린 크기 : 13.6m x 7.7m
▶ 해상도 : LED풀컬러 국내 최고 화질
▶ 하루 18시간, 20구좌 상업 광고 노출
▶ 광고 노출 시점 : 계약 즉시 가능

믿을 수 있는 그룹의 No.1 광고회사
SRB 애드 문의 062) 510-4650